

# DJ를 키웠던 그 곳...복원사업 본격화



김대중 대통령이 1937년부터 1945년 전·후반까지 학창시절을 보냈던 집(가운데 미색부분)



김대중 대통령의 모친이 운영했던 고려여관 터. 현재 건물은 붕괴되고 골격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신혼시절을 보냈던 목포 목원동 굴다리 아래에 있는 집으로. 당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목포시가 '故(고) 김대중 대통령 유년 시절 집터 복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김 대통령이 신혼시절을 보냈던 집은 도심형 민박 체험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

목포시는 6일 "학창시절 김 대통령이 공부했던 집터 복원과 모친이 운영했던 여관 터에 기념조형물과 편의시설 등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1단계 사업으로 빈 집터로 남아있는 만호동 2-3, 2-4번지(244.6㎡) 고려여관 터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김 대통령이 1937년부터 1945년 전·후반까지 거주했던 만호동 2-49번지(33.1㎡) 집터를 복원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총 6억원(국비 50%, 시비

50%)으로, 시는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확보하고 내달부터 고려여관 터의 환경 정비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의회는 7일 오전 정영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관 상임위원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호동 집터 현지를 방문해 김 대통령과 초등학교부터 고교때까지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인 정진태 신안보육원 이사장의 증언을 청취하는 한편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2월 토지보상협의를 마치고 지역특별회계 사업(관광자원 개발)으로 국고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오는 4월 빈 집터 환경정비와 폐기물 처리 공사를 시행한 뒤 집터복원공원조성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모친이 운영했던 고려여관은 1930년대 목포에 있는 극소수 고급형 여관이었으며, 김 대통령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집터도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삼학도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함께 DJ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또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대

상지역인 마인게터(일명 목원동 굴다리 밑)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혼시절을 보낸 집도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시켰으며,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이 신혼시절 거주했던 집은 당시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돼 있어 시는 이곳을 도심형 민박 체험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심인섭 목포시 도시개발사업 단장은 "김 대통령이 신혼시절 거주했던 집은 한옥이면서도 양지바른 곳에 있고 정원이 잘 가꿔져 있어 민박 시설로 안정맞춤"이라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하룻밤 머물

면서 인동초로서의 삶을 회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대통령이 신혼시절 거주했던 집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필수이지만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데다가 골목길마저 협소해 주차공간 확보가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목포시는 사업지에서 200m 가량 떨어진 현 마인게터 입구(나주 곶탕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을 3억7600만원을 들여 확장하고, 총 55면 규모의 예술 주차장으로 꾸며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내달부터 환경정비 내년초 공사 돌입...관광코스 개발 병행 추진

## 목포 유일 유소년 스포츠클럽 '송림 클럽'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전환 추진 눈길

목포 유일의 유소년 스포츠클럽인 '송림 스포츠클럽'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10년째 맥을 이어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송림클럽(단장 김선희 목포대 교수)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스포츠 문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림클럽은 목포대 송림캠퍼스 체육관과 인조잔디구장을 활용해 농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 실내스포츠 등 5개 종목 운영을 결과, 지난해 연간 5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구, 배구, 배드민턴(노인) 3개 종목에서는 성인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 엘리트 체육 연계를 통해 축구 종목에서 총 5명을 엘리트축구팀에 진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송림클럽은 매년 3, 5, 7, 9, 11월 종목

별 자체 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과 스포츠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년 8월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꿈 키움, 마음 나눔 스포츠캠프'를 개최, 프로축구단 클럽하우스 시설 견학, 직업 탐색,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올 5월에는 청소년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풋살, 길거리 농구, 뉴스포츠 이벤트 등 '위풍당당 정당당 품셈 품사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송림클럽은 10년째를 맞아 2016년을 제2의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목포시와 협력해 '목포시 유소년축구단'과 '목포시정배구클럽'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is0533@

## 교통사고 다발 4곳 회전교차로 설치키로

목포시가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신안수협 사거리, 제일중학교 삼거리, 전남서부 항운노조 삼거리, 여객선 터미널 사거리 등 4곳이다.

사업대상지들은 비효율적 신호운영으로 불필요한 교통지체와 함께 교차로 진입로 내에서 차량의 저속운행으로 따른 접촉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4개소 가운데 서부항운노조 삼거리의 도로 구조는 삼거리이지만 차량 진출로는 네 곳이어서 구조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실제 어린이바다과학관에서 선창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삼학로에서 선창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 간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시는 평면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도로구조는 삼거리이지만 차량 진출로는 네 곳인 목포 서부항운노조 삼거리 전경.

해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4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총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연 목포시 교통행정과장은 6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회전교차로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가운데 내년도 국비에 4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시 1차 추경안 175억원 증액 편성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매입비 등 목포시가 2016년도 본예산보다 175억원을 증액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목포시의회에 제출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1차 추경 규모는 올해 본예산 6482억원보다 175억원(2.63%)이 증가한 6657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5330억원보다 49억원(5.68%)이 늘어난 5379억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1152억원보다 125억원(10.90%)이 증액된 1277억원이다.

주요 편성 사업은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관련 유달산 공영 주차장 토지매입비 14억원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1억7000만원 ▲대양산단 입주기업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주요 간선도로 포트 홀 정비 3억원 ▲대박마을 진입로 개설 2억5000만원 ▲주차난이 심각한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등이다.

이지흥 목포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2차 추경이 7월 이후에 예정되어 6월까지 집행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면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인건비 등 법정경비 인상분, 다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민원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0월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시의회 10~18일 임시회 1차 추경안·조례 등 심의

목포시의회 제325회 임시회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시가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와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회기에 해상케이블카 노선 변경을 골자로 한 '목포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협의회'와 1차 추경예산에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첫 단추인 '유달산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두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목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인 학대 예방, 친환경농업 육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 등이 담긴 조례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광주 GWANGJU HEARING AID CENTE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